



제2021-2호 (통권 27권)

#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CONTENTS

권두언 .....	04
한국사회학회의 사업을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장원호(한국사회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지상세미나 :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 국제개발협력, 경제, 교육, 국제정치 국제개발협력 현안과 과제: SDGs 시대 성찰과 제도화 방향성 .....	08
김성규(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대학과 학문의 가치 .....	10
정진욱(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교육의 현안: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	12
정일환(한국교육학회 회장, 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 국제정치학의 현안과 과제 .....	15
전재성(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 .....	18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이진규(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제19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학회동정 .....	21
협의회 소식 .....	29
협의회 임원진 .....	32

## 권두언



### 한국사회학회의 사업을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장원호

한국사회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지금 우리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코로나19라는 파도가 겹쳐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사회과학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 사회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탄생하였고, 그 주된 목적이 근대사회의 인간과 사회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급변의 시기에 사회과학의 역할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사회과학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변의 시기에 사회과학의 미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내에 여러 학문 분야가 있고 각 분야마다 이론과 방법론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학회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 중에 사회과학계의 다른 학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사회학회의 현황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문공동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과 인문학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이 대학을 연구업적 위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각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논문 실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연례

사회학대회에서 회원들끼리 깊은 교류하기 보다는 논문발표와 토론만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일상화되었다. 회원들끼리의 교류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사회학회라는 모학회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서로 교류학보다는 전공이 유사한 분과학회 회원들끼리의 교류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학회는 이러한 편향적인 교류가 지속될 경우 사회학 전체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전공 학자만의 교류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회학 연구의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1년간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공감 식탁'이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세대의 사회학자들이 아무런 주제 없이 만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를 통해 사회학회원들의 공동체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서로에게 창의적인 자극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의 두 번째 주요 사업은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이다. 위에서 제기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문제, 즉 불평등, 환경, 세대, 젠더, 복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쟁점들을 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분열된 집단들은 갈등을 넘어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사회는 'All of nothing 경쟁'과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를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그리고 철실히 필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이다. 사회적 공감은 ‘다른 집단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통해 타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들과 불평등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학자들의 ‘공감 식탁’도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연구분야의 학자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학자들의 입장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회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학자들의 공감 식탁’을 기획하고 있다. 사회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학, 경제학 등 기존 사회과학의 학자들, 그리고 인문학계의 학자들, 더 나아가 자연과학과 공학의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식탁에서 소통하면서 한국사회의 공감 부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 대화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학회는 또한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서울교육청과 공감 학습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감을 위한 중요한 학습, 예를 들어 ‘진정성 있는 말하기’와 ‘경청하기’를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쟁주의, 성적지상주의, 능력주의라는 가치관으로 무장한 채 기성 사회로 진입하는 청소년을 육성한 것이었고, 이들은 공감부재, 각자도생의 하이퍼 경쟁 사회의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는 청소년 공감 학습이 어찌하면 우리사회의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청소년 공감 학습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주의와 능력주의가 아닌 상호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한다.

올해 한국사회학회의 세 번째 주요 사업은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기획한, “탈진실의 시대, 보수-진보를 넘어”라는 공공사회학적 시도이다. 공공사회학적 시도란 사회학의 다양한 연구들을 일반시민에게 전달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분되고 서로 상대방 후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곳은 ‘단편적인 사실’을 ‘종합적인 진실’로 보도

하고 있는 여러 언론매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론매체란 기존의 TV와 신문을 넘어 인터넷 신문과 방송,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탈진실 사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사실만을 찾고 보도하는 언론사와 그 사실만을 진실로 믿고 다른 증거에는 눈과 귀를 닫는 확증편향에 빠진 독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탈진실의 시대에선 진실이 무엇이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각 집단이 편파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진실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회의 기획은,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증거 기반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충하는 증거들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집단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과 다른 입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또한 그러한 정책의 수립이 다른 정책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엄밀하게 포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한국일보 지면으로 네 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학회가 힘을 쏟은 주요 사업은 학제 간 융합 프로젝트이다.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뉴노멀 현상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복잡계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4회에 걸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는 모두 중앙일보를 통해 크게 소개되었다. 이 기획 역시 공공사회학적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계의 학제 간 협력과 더 나아가 자연과학과의 공동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 융합 심포지엄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과학계의 다양한 전공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함을 통해 각 학계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네 번의 심포지엄을 통해 참여했던 모든 학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복잡계학회가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과 실제 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 등은 참여했던 사회과학의 모든 학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사회학회는 이러한 융합적 시도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최고의 화두라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non-fungible token)의 확산으로 예상되는 사회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과의 융합적인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 세미나를 통한 학문적인

소통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공감식탁’에서도 자연스럽게 융합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학회의 여러 사업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한국사회학회의 사업 방향이 사회과학 내 다른 학회들의 현안과 미래계획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했던 여러 주제들, 학문공동체의 부활을 통한 창조적 연구의 확장, 공감부재의 양분화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과제,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의 미래 방향에 관한 사회과학계의 대안 제시 등은 모든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지상세미나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  
국제개발협력, 경제, 교육, 국제정치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게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뉴스레터

1. 국제개발협력의 현안과 과제 : SDGs 시대 성찰과 제도화 방향성  
김성규(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2. 대학과 학문의 가치  
정진욱(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3. 한국교육의 현안 :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정일환(한국교육학회 회장, 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4. 한국 국제정치학의 현안과 과제  
전재성(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국제개발협력의 현안과 과제: SDGs 시대 성찰과 제도화 방향성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우리나라가 이른바 ‘선진공여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이 된지도 10년이 지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실행 기관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여를 한지 30 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는 원조의 신흥 모범국으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모델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코로나 시대 K-방역의 성공과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를 기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활발한 개발협력 정책 논의 및 방향성 모색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협력 학계 또한 지구촌 공동체의 삶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 빠르게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방법론 및 방향성 모색에 동참하고 있다. 개발협력 실행의 측면에서도 합리성, 공정성 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며, 단순한 원조 실행을 넘어 개발원조의 철학적 사고가 증진되고 있는 점, 시혜적 관점을 넘어 국가 브랜드로서의 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은 0.15%를, 총 예산은 22.5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29개국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결코 타 공여국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다.

제도화의 측면에서도, 2017년 OECD DAC은 동료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와의 규범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2019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사실 문서화된 파트너십 기본정책은 이른바 ‘선진 공여국’에서도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다. 또한 2020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국내 개발협력 관련 정부 정책 결정 및 조정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간 한국 개발협력의 문제점 주 하나로 지적되어 온 원조의 분절화 및 사업의 중복을 극복, 개발협력 평가의 효과성, 평가역량 제고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2021년 2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출범했고,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도 신설되기도 했다. 이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제도화의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성 속에서도 공적개발원조의 제도화 수준을 단기간에 높여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적원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원조 실행기관 내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개발협력 정책형성, 연구 그리고 실행의 향후 방향성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량적 수치의 개선과 정책 프레임의 외연적 구축이 곧바로 개발협력의 효과성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달성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히려 프레임의 규정성, 이로 인한 분절화의 심화, 과정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출범을 옥상옥(屋上屋)으로 바라보는 시선. 정부 내 쌍방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형식성이 높아질수록 동의구조는 더욱 정교화 해져야 하며 내실화 또한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구조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만 조직 간 상이한 논리와 맥락, 노하우와 역량이 잘 조정되고 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시대 학계를 포함한 개발협력 지형의 성찰과 방향성 모색 측면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제도화의 측면에서 정부,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는 개발협력 연구와 실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연관된다. OECD DAC이 우리에게 권고했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전략 문서로 마련되었으니 '우리의 파트너십의 수준은 보다 진전 되었다'라는 평가가 타당한 것일까라는 물음과도 관련 있다. 파트너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상호적 필요와 시너지를 위한 방법론이며, 일방이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의 발전 측면에서만 볼 때 우리나라 정부-학계-시민사회 간의 상호 신뢰가 쌓여왔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일방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형식적 파트너십을 '강요'하고 '도구'로 사용한 측면은 없었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시간인 것이다. 아울러 서구에서 '대세'이며 여러 연구를 통해 제안 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이 우리 개발 협력 지형에 맞는 방향인지도 개발협력 학계에서 진지하게 고민 해야 한다.

둘째, 변화된 환경, 특히 코로나 이후 지형에서 개발협력 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즉 학문간 분절성 극복과 연구의 포용성 달성, 통합적 접근의 방법론 구축의 요구가 있다. 그간 학계에서는 개발 협력 연구와 실행의 '통합적인 접근', 연구주체의 융복합성, 포용성을 강조해 왔으며, 현재도 이를 꾸준히 강조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사실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통합적 접근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간 분절화 극복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강조 되어온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다양한 공간과 논의를 통해 학계의 관련 이론적인 틀 점검과 현장의 경험이 활발하게 상호 공유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개발협력 연구의 측면에서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통합적 접근이 가지는 의미와 전략적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의 상호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 이슈까지 고려된 융·복합 연구 주제의 발굴과, 학자들과 개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문성에 기반 한 열린 소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이행해야 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문제 이다. 이는 정부를 포함한 공적영역, 학계, 시민사회 모두에게 해당 되는 이야기이며, 특히 개발협력 지형에서 강조되는 학계의 책무성은 학계가 개발협력 현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개발학의 형성 자체와 그 안에서 논의되는 담론들이 개발협력 사업과 주체들의 책무성과 강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분쟁과 난민 그리고 평화의 문제에 HDP(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방법론이 학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책무성의 발로로 보여 진다. 현재 전 세계 200 여개 국가는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지도 또 상호 존중되고 있지도 못하다. '국익(National Interest)'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경제적, 안보적 소외와 배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책무성 차원에서 기존 OECD 질서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한 존재 한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국제사회 책무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성찰의 지점들과 대면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경우 각 주체들은 이제 효과성이 기대되는 범주와 대상을 찾아 나서기 보다는 내적 성찰과 되돌아봄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재규정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SDGs 시대 사회안전망, 청년일자리, 젠더이슈, 민간기업 활성화 등 많은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 청년의 기회박탈과 이로 인한 좌절, 공정 가치의 훼손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하는 임무에서 우리 학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발협력 학계와 실행자들도 이러한 도전에 화답해야 함은 마땅하다. 결국 학계를 포함한 개발협력 모든 주체 들이 포용성이라는 가치로 더 다가가고 신뢰를 쌓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 대학과 학문의 가치



정진욱

한국경제학회 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십여년 전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항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업무에 투입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니, 대학에서는 도대체 4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냐는 내용이었다. 대학의 역할이 '직업 훈련'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대학의 역할과 대학 교육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오해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최고 83.8% (2008년)에 달한다. OECD는 25세-34세의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을 집계하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69.81%로 단연 세계 1위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그 비율은 51.86%로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이유는 물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고, 그런 논리적 연장선에서 대학의 역할을 '직업교육'으로 인식하는 오류도 발생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학의 의미와 존재 목적은 분명히 '직업교육'은 아니다. 대학은 '학문'이라는 무형의 보물을 키우고 유지하는 곳이다. 학문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형성되는데, 그 분야는 인문학부터 공학까지 매우 다양하며, 국가별로 또 시대별로 그 수준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21년 현재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등 선개발국들의 학문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눈에 띄게 높고, 우리나라만 시대별로 따로 본다면 조선 중기 세종 치하와 21세기 진입 후의 최근 학문 수준이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대학에 연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문적 영역에서의 교육이지, 직업교육 일 수는 없다. 효과적인 직업교육은 대학과는 다른 목적과 형태의 조직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우리와 교육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최근 대학 진학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예를 들어 간호, 농업, 요리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대학이나 학원이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한 나라의 '학문 수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 기술이 학문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경제적 부요함이나 문화 예술의 발전 역시 학문의 발전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문 창달에 힘쓴 세종대왕 시대에 국력이 강하고 나라가 풍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보면 학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경제적 성과와는 달리, 학문의 중요성은 때로 간과되고 무시당하곤 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경향이 바로 그렇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선거 전략의 하나로 대학 '반값등록금'이 논의되더니, 2010년 1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규제되기 시작하였다. 법에는 '3년 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등록금 인상률을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교육부의 추가적 제제로 인하여, 사실상 2009년 이후로 올해까지 12년 간 대학의 등록금은 거의 동결되었다.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이미 높다는 근거로 유럽 특히 독일의 낮은 대학 등록금 예를 많이 든다. 그러나, 독일은 거의 모든 대학이 국립인 나라로, 교육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유럽의 다른 선개 발국들에서도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적게 받을 뿐 아니라, 그나마 강한 규제 하에서 받는 지원이라 대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학문 발전을 위한 대학의 투자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년 간의 대학 투자 위축의 결과, 우리나라의 학문적 수준은 상당히 후퇴하였다. 학문적 수준이 정확히 측정되기는 어려우나, 평판도 위주인 영국의 'QS (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 평가' 나 연구실적 위주인 네덜란드의 '라이덴 (Leiden) 대학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사실로 볼 때, 이런 추론은 합리적이다. 현장에서 이런 학문적 수준 저하의 우려는 매우 실제적으로 감지된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신입 교수를 초빙할 때 미국 등 서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을 모시기 원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초빙이 거의 불가능하다. 재정이 어려워진 우리나라 대학들이 교수 연봉을 10여년 간 동결함에 따라 미국 대학과의 연봉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의 경우 미국의 주립대학 조교수 초봉은 12개월 기준 평균 15만불(약 1억 8천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조교수 초봉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여도 우수한 신진 학자들을 우리나라 대학에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수한 신진 학자들이 학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학문적 수준의 미래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학문의 발전은 그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어서, 한번 후퇴하면 다시 되돌리는 데 여러 배의 힘이 든다. 화석 에너지의 남용이 인류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의 오존층을 크게 파괴하였듯이, 학문 수준의 저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문의 가치를 재평가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한국교육의 현안: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 정 일 환

한국교육학회 회장, 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인류는 역사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 출산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의 재편성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교육제도에 대하여 정치권이나 정부,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제도의 근간 유지를 전제로 대중요법적 처방에 치중하여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규모학교에 관한 교육정책이나 교육학 분야 연구도 교육력의 향상이나 교육격차 해소의 관점이 아니라 통폐합을 전제로 한 연구 혹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는 종전의 정책이나 연구 패러다임으로는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어촌지역만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 적정 규모의 학교도 소규모화가 진행되어 소규모학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경우 종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한 정책이나 교육연구,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사례연구 등은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사회의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면밀히 조망하면서 교육 격차 해소와 모두를 위한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관리 교육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지역 활성화의 거점 또는 지역발전의 센터로서 학교의 역할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육학의 관점에서 교육의 현안과제인 저 출산 및 지역사회의 소멸위기 등에 관한 해법을 찾고,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기능을 통합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교육이 오히려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저 출산 원인으로 '과다한 양육·교육비', '높은 사교육비' 등의 교육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정부, 2011). 2020년 기준 출생아수 272,337명,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출산율 쇼크'가 생긴 배경에는 인구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에 소홀하였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여 심지어는 지역의 소멸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성숙으로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1990년대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즉 경제 산업의 발달은 인구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타격은 고스란히 농어촌지역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은 저 출산이라는 사회문제가 교육문제로 이어져 지역의 토대가 위협받고 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단계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해 학교교육과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붕괴할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 여건이 열악하며, 이로 인한 교육격차는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학교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도시의 적정 규모 학교와 비교하여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교육자원은 학습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학습기회의 부족은 사회 격차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학업 성취도, 수능점수, 대학진학 등의 격차로 나타난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대도시지역의 학교와 비교하여 교육기회, 학력 등 다종다양한 교육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한 학교의 학생 수가 수명 내지는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학교로 교육의 적정화를 기하기 어렵고 여기에 지역의 특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격차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앞서 저 출산을 경험한 외국의 성공사례 요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기초로 통학구역의 유연화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재편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규모학교 운영의 기본방향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서 농산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은 신도시개발로 인한 학령인구의 수평이동까지 더해지면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규모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는 소규모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인구학적·문화적·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 전망에 근거하는 소규모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소규모학교 운영 대책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학교 운영 모델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학교의 운영대책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양적 실적 위주가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이라는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그 운영은 교육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후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주민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교육시설의 입지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또 다시 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 융합방안

첫째, 교육행정 측면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통해 ‘강소학교’로서 지속가능하도록 개별학교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 측면에서는 학령인구의 양적 측면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 지역 인구의 증감, 출산율 증감, 외부 유입 인구 여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예측해야 한다. 통합할 경우에 학생 통학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통학 버스의 운영, 교통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학교 기숙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적정 규모를 고려한 ‘집적 교육’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권역별로 학교 특성, 교사 현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적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특수 교과 예를 들면, 전통 악기나 특수 예술, 특정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에 권역을 넓게 설정해서 특수 전공, 또는 특기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의 발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 측면에서는 지역에서의 ‘학교’의 상징성과 역사문화적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는 설립 이후 지역 인구, 교육,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역사성을 전제로 역사중심학교 모델, 통폐합-폐교 후 지역공동체 활용, 사립 소규모학교의 통폐합-폐교 후 영리목적 활용, 소규모학교를 교육과 특수목적 사업 기관으로 전용,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합 운용 방안, 마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 융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정일환 외, 2021).

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야 한다. 지역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전국 표준화된 행·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공교육 생존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92.7%)도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에서의 교육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시가 인류의 일상생활 및 직업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공동체로서의 학교(school as community)’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공’의 구축 등 교육거버넌스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과 교육구성원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학습동반자(learning partnership)’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미래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교육학적 접근과 더불어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지리학 등 제반 사회과학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질 때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규(2010).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일본의 학교통합추진과정 정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일환(2005).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자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 학교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2), 225-249.

정일환·김병찬(2006).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자격기준 개발연구, 교원교육연구, 23(2), 285-302.

정일환 외(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일환 외(2021). 저 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일환 외(2021.6). 소규모학교의 운영 실태와 지역사회 융합 방안, 한국교육학회 2021년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33-152.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2021). World Values Survey, WAVE 7(2017-2021).

## 한국 국제정치학의 현안과 과제



전재성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국제정치학이 현대 학문 분과로 성립된 것은 1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직후이다. 서방 국가들 특히 당시에 국제정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던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재발을 막고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껴 애버리스트위스(Aberystwyth) 소재, 웨일즈 대학에 국제정치학과를 창설하였다. 알프레드 짐메른(Alfred Zimmern)을 비롯한 2명의 교수로 출발한 국제정치학과는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es)가 기부한 2만 파운드를 기반으로 시작했고 1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젊은 전몰자들을 기리고 국제연맹을 통한 세계평화를 추구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웨일즈 대학은 국제정치학과와 책임교수 자리에 우드로 윌슨 교수라는 이름을 붙여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려는 목표를 나타내고자 했다.

국제정치학이 학문 분과로 성립된 지 이제 백 년이 지났다. 국제정치는 속성상 강대국들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장이다. 유럽에서 발원한 주권국가 체제가 제국주의의 물결 속에 비서구 지역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서구 강대국들이 현실과 학문 모두를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서구의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났지만, 곧바로 이어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속에서 여러 국가는 진영 논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기 국제정치학 역시 강대국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핵심 주제였으며, 핵무기의 출현 이후 미소 간 핵 억지는 세계인의 사활을 건 문제로 부상했다. 비서구에서는 한국전, 베트남전과 같이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냉전 논리와 초강대국의 대리전 시각에 따라 분석되고

비서구에 고유한 국제정치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은 결여되어 있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정확히 30년 동안 국제정치는 격변에 시달려왔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미국은 진정한 자유주의 평화의 도래, 역사의 종언, 우드로 윌슨이 꿈꾼 이상의 실현 등을 외쳤다. 그러나 냉전 논리에 눌러있던 비서구에 잠재된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위 강대국이 아닌 비서구 국가들의 부상(Rise of the Rest)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인종 분규, 이란, 이라크 등 지역 강대국 간의 분쟁, 미국 주도 질서에 반발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 집단의 발흥 등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2001년 9.11 테러는 역사상 가장 강한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한 테러 집단,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및 중동 정치, 더 나아가 비서구에 잠재된 국제정치적 모순을 두드러지게 한 사건이었다.

1919년 국제정치학이 성립되고 1991년 냉전이 종식되기까지 국제정치학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등 주요 거대이론, 혹은 패러다임들이 자리 잡았고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의 1차 논쟁, 행태주의 대 역사주의의 2차 논쟁, 이후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 논쟁 및 실증주의 대 탈실증주의 논쟁 등 다양한 논쟁도 이어졌다. 이러한 이론들이 주목한 현상은 근대 주권국가 체제의 기본 조직원리, 힘에 의해 질서가 결정되는 국제정치 특유의 성격에 대한 분석,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의 원인과

진화과정, 군사적 영역과 여타 영역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중요성 등이었다. 한마디로 강대국이 만들어가는 국제정치 질서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냉전 종식을 전후하여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관, 구미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 국제정치 방법론, 가치중립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주도국의 현상 유지를 관리하는 문제해결적 이론의 편향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점증했다. 지구화 혹은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주권국가가 보유한 권능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주권의 소재와 성격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유럽의 근대주권국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관해 물음도 제기되었다. 국제정치적 근대가 거시이행을 겪고 있다면 탈근대의 지구질서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이다. 유럽에서 근대 주권국가가 출현한 것은 대략 17세기 전후로 잡는다. 중요한 분기점은 30년 전쟁(1618-1648), 그리고 이를 마감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든다. 그러나 근대 국제 정치가 한순간에 조성된 것이 아닌 만큼 15세기부터 현재까지 긴 역사에 초점을 두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역사사회학적 접근에 근거한 연구성과도 다수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서구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유럽에서 자체 완결된 주권 국가 체제가 산업혁명 이후 서구 국가들의 막강한 물리적, 그리고 앞선 문명의 힘 때문에 비서구로 넘쳐 흘러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비판적 역사사회학, 세계체제론과 같은 구조주의 관점에서 볼 때, 1492년 지리상의 발견 전후부터 유럽의 질서는 이미 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규정된 것이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부터 막대한 재화의 약탈과 수입은 물론이고, 영토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경 개념의 출현, 국제법의 발전 등과 지구적 차원의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제정치학은 비판적 전회, 역사적 전회, 규범적 전회를 비롯하여 비서구/탈서구적 전회 및 지구적 전회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서구 주류이론의 제한된 가치 기반과 분석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현 국제질서의 발원과 진화과정을 설명하고 지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가치에 기반하여 새롭게 학문적 발전을 하자는 취지이다.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많은 비서구 학자들이 서구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세기 서구와 일본의 침탈 속에 유길준 등 국제질서에 관한 연구와 저술을 한 인물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국제정치를 연구한 학자와 언론인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국내 주요 대학에 정치외교학과가 생겨나고 국제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도적 토양이 만들어졌다.

냉전과 분단의 외중에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군사안보 및 외교안보, 경제발전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한미동맹의 현실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국제정치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 유학을 통해 서구 주류이론을 효과적으로 수입, 적용하였고 세계와 지역의 국제정치 질서, 한반도의 국제정치 상황을 분석하는데 미국발 국제정치학은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탈서구 전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과 동북아는 세계질서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적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지금의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는 미중이 충돌하는 핵심적인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변화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철저히 연구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임무를 가진다.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는 미중 간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오랜 주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비서구 국가로서 세계적 리더십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군사, 안보, 경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 영역뿐 아니라, 보건, 환경, 인권, 문화, 테러, 인종 등 새로운 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이들 영역은 밀접한 상호 관계 속에 국제정치 질서를 매우 복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기존의 국제정치연구 방법으로는 분석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둘째, 한국의 국제정치 환경을 분석하는데 서구 주류이론이 가지는 한계는 명백하며 소위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성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목표 혹은 수사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국제정치학에 국적이 있다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제정치학을 가져야 한다는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자국의 상황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지구 전체, 포괄적 국제질서를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독자적

학문 업적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국의 독특한 경험에서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보편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국제정치학 시각들이 서로 모여서 진정으로 지구적 국제정치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서구 국가로서 식민지를 경험했고, 그것도 서구의 제국이 아닌 비서구 제국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여 제국주의 시대의 모순을 중첩적으로 체현한 바 있다. 냉전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와 같이 여전히 탈식민의 전후처리에서 주체의 입장에 서지 못했다. 같은 민족끼리 독립운동과 국가 수립의 과정에서 분단되어 전쟁까지 겪은 나라이며 여전히 분단의 모순을 겪고 있다. 미국 주도 동맹의 모범적 파트너이자 현재는 중국과 폭넓은 경제, 사회문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었으며 문화강대국의 위상을 이룩하고 있다. 한국에 고유한 경험은 지구 질서 전체의 진화과정과 흥미롭게 맞닿아 있으며 한국의 국제정치적 역사와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구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매우 많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미래 국제질서에 많은 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한편으로는 주류 국제정치학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비서구/탈서구, 지구적 국제정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 국제정치학의 강한 영향 아래 있으므로 한국적 현실과 유리되거나, 한국의 국제정치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에 매몰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미중 전략경쟁 속 생존 및 미중 협력 촉진, 동아시아 및 지구적 다자주의 협력을 위한 중견국 역할 등 많은 외교정책 사안을 안고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현안을 해결하는 학문적 기여를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나 환경 문제처럼 새로운 위기가 산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이진규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제 19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사회과학협의회(이하 사과협)와 개인적으로 인연을 처음 맺게 된 시기는 고려대 부임후 1년 뒤 (1990년) 동교 행정학과 김영평 교수님을 만나고 시작되었다. 행정고시반 지도교수 간 상호 업무협약의 차 알게 된 선배교수인 김영평 교수님은 그 후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교류를 하고 지내게 되었다. 김교수님을 통해 사과협의 존재와 활동을 알게 되었고 그 기회는 경영학 특히 전공 분야인 인사조직분야에 함몰되어 있었던 micro한 내 시야를 사회과학분야로 확장시켜 주었다. 그때서야 사회과학이란 통합적 학문분야(discipline)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분야를 일찍이 문을 열고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에스콰이어 창업자고 이인표 회장의 선견지명에도 감명을 받았었다. 지금은 예전보다 지원이 미미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과협은 이인표 회장이 설립한 사직동 사회과학도서관에 사무실을 자리하고 있다.

1990代 초 임종철 회장 시절 사과협에서 그 당시 핫 이슈였던 환경문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는 윤이 좋게도 경영학분야를 대표하여 연구위원회 환경팀에 가담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멤버로서는 팀장이었던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를 비롯한 김영평(고려대 행정학), 양중회(성균관대 사회학), 최석진(교육개발원 교육학), 김남두(서울대 철학), 전경수(서울대 인류학), 이상돈(중앙대 법학) 그리고 이진규(고려대 경영학)이 참가하였다. 첫1년은 月 1회 돌아가며 발표를 하며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상대방의 환경문제를 공부하였고 또 다른 1년 동안 자기분야 관점에서 논문을 쓰는 것이었다. 특히 전공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학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각 전공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를 조명해보는 프로젝트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문적 특성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었고 더욱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고매한 선생님들을 알게 되고 인생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학문적 인간적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에 최대의 행운이었다. 현재의 나를 만들어 주신데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덤으로 그 당시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환경 선진국이었던 호주, 뉴질랜드를 견학 방문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수확이었다. 호주 브리시베인 대학에서 가진 환경문제 세미나를 가졌고 호주, 뉴질랜드를 두루 방문하여 환경 선진국 현황을 견학 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연구의 결정체는 한권의 책으로 묶여 사과협에서 출판되어 아마도 그 당시 환경문제에 대한 선두적인 연구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후 사과협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학회 멤버들과 미온적 교류를 거듭하여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서울대 임현진 교수님과 교류는 계속 이어져 내가 사과협 행정을 맡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임현진 교수가 사과협회장 임기 2년을 하는동안 나는 경영학 대표로 수석부회장 직책을 맡으며 임회장을 보좌하였다. 여러 활동 중 대만에서 개최된 ASSREC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사회과학의 국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금도 사회과학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리라 하면 무언가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답을 할 수 밖에 없듯이 아시아 사과협 모임에서도 사회과학이란 실체가 한손에 꼭 잡기가 쉽지가 않다. 올해의 하반기 뉴스레터의

주제가 “한국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로 알고 있는데, 전임회장으로서 무언가 속 시원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데 나의 무능함도 있었지만 사회과학분야의 광범위성 또는 포괄성 때문일 수도 있다.

임현진 회장의 뒤를이어 제19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나는 우선 많은 중압감을 느꼈다. 사실 회장 자리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나에게 회장 지명이란 매우 뜻밖이었다. 그러나 임회장의 적극적인 추천과 전임 회장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회장직을 수락하였다. 사실 사회과학분야는 사회학·경제학·행정학·정치학 등 소위 학문적 역사가 깊은 순수학문분야가 대중을 이루고 이 분야전공 선생님들이 사과학 운영을 맡는게 관례였다. 학문적 역사가 미미한 경영학이 사과학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88년 황일청(한양대) 교수가 처음이었다. 그 후 약 20여 년간 타 분야에서 교대로 운영을 맡았으나 임현진 회장이 나에게 이전 경영학이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경영학의 위상이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점점 더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니 할때가 되었다고 용기를 주었다. 임회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미래인력연구원을 장기간 경영하면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서 나를 힘을 내게 되었다. 미래연을 통해 구축된 사회과학분야의 인적 네트워크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구나 차기 회장으로 서울대 박찬욱(정치학)교수가 내정되었으므로 나와 인적 친근함도 보탬이 되어 나의 임기 2년 박교수 임기 2년 도합 4년의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임현진-이진규-박찬욱으로 이어지는 6년간의 사과학 연결고리가 사과학이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것이 큰 업적이 되었다. 물론 미래연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 또한 큰 힘이 되었다.

회장 재임 시 방콕에서 열렸던 ASSREC 회의에 다녀왔다. 그때의 이슈는 인도, 파키스탄이 신입 멤버였던 중국을 업고 호주 주도의 ASSREC 운영에 반기를 들고 독립된 아시아 사과학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ASSREC 회장이었던 호주의 존 빈톤은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고 운영자체도 그리 활발하지도 않았다. 꼬박 꼬박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국들은 미지근한 활동을 하며 장기집권을 하는 호주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을 새로운 협의체에 참여시키려 인도측은 적극적 교섭을 해왔으나 일본과 우리는 본국에 돌아가 협의 후 답을 주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결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은 그냥 호주가 주도하는 ASSREC에 남기로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ASSREC 회의에 여러번 참여하며 느끼는 바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사회과학협의회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 유사 공공기관이었고 오직 한국 조직만 교수들 중심의 사적조직이었다. 재정적 독립·운영이 현재 한국사과학의 큰 이슈인 것도 바로 우리조직이 사적인 교수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적 자립 및 독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부금 투명성이 강조되는 요즘 모금이 어려운 현실에서 일반회원이 없고 학회회원으로 구성된 사과학의 운영이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과제이다.

수년 전 장기집권하였던 ASSREC 회장 존 빈톤의 갑작스런 별세가 아시아 사회과학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인다. 인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사과학이 힘을 받아 다시 준동할 조짐을 보일 것이고 정부의 전폭적지지를 받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인도편에 서든 호주편에 서든 어떤 형태로 그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ASS)는 중국정부의 사회정책을 입안하는 중심 세력이다. 연구 및 교육기능을 수행하면서 중국 22개 성에 지부를 세워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수립·자문을 하고 있다. CASS 산하에 76개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고 박사급 교수 및 연구원이 중심, 학회 중심의 순수 학술단체가 아닌 정부의 기본정책을 수립·자문하는 중국사회과학원은 그 활동범위 및 예산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한국에서 ASSREC 24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제10대 안병영 회장이 ASSREC 회장을 맡아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여 년이 지났다. 이번 ASSREC 한국 개최도 만사지감이 있지만 국가 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떠말아야할 국제대회이다. 지난번 대만대회 참석시에도 한국이 ASSREC 회비가 어려서 미납되어 있다는 발표가 있을시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랐다. ASSREC 회비는 주로 국가경제력에 따라 배분 책정이 되는데 한국이 그 경제규모가 고려되어 일본,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인 학회회비로 충당하는 우리사정은 과거에 여의치 않았는지 몇 년씩 밀려있었다. 추후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지원 없이 사적 조직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 많은 현실이었다.

2023년 ASSREC 한국개최를 계기로 KOSSREC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회는 ASSREC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라니 한국측에 심적·재정적 부담감을 주고 있는건 틀림없다. 전임 회장단 회의에서 개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니 앞으로 차기회장, 대회 위원장, program chain 등 여러분들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 단순히 재정적 문제 해결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 세계대회를 매끄럽게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무스한 운영을 위해 재정적 만족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호주, 인도, 필리핀 같은 영어권 국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원만한 경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세계대회란 실컷 돈을 쓰기도 자칫 잘못하면 운영의 미스로 판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에 로비를 하여 지원을 얻어내던 혹은 산학학회에 함께 모두 분발하여 재정적 독립을 꾀하는 방향으로 학회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학회동정

## 경제사학회

### ■ 2021년 하계학술대회 개최

- 1) 주제 : 자유 주제
- 2) 일시 : 2021년 08월 28일(토) 14:00~16:00
- 3) 장소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

### ■ 2021년 연말학술대회 개최

- 1) 주제 : 경제사, 경제학과 역사학 새로운 협업의 모색
- 2)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3:00~17:40
- 3) 장소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

## 국제개발협력학회

### ■ 2021년 하계학술대회 개최(07.09)

한국 공적 원조 30년 전망과 성찰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 개최함

### ■ 제 8회 UNESCAP 동북아개발협력포럼(8.26-27)

### ■ UN FAO-KAIDEC LAO 체결(9.16)

농업디지털화, 푸드시스템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등 분야에서 협력

### ■ KAIDEC-KOICA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10.21)

### ■ 2021년 동계학술대회 개최(11.26)

### ■ 제 7회 아시아개발협력 심포지엄(12.17)

### ■ 시민사회 파트너십 민간협력 활동

- 1) 하계 정기 학술대회 학계-시민사회 파트너십 형성 세션 개최(7월)
- 2) 학계/시민사회 파트너십 2차 수요 조사 실시(10월)
- 3) 파트너십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상호협력 프로그램 구성(11월)
- 4) 동계 정기 학술대회 학계-시민사회 파트너십 형성 세션 개최(12월)

## 대한지리학회

### ■ 2021년 제21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개최

- 1) 개최목적 :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지리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2020년 제외) 전국구 지리올림피아드를 개최,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
- 2) 주최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국토연구원 / 주관 : 전국지리올림피아드 특별위원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 후원 : 각 시·도 교육청
- 3) 대회방식 : (지역예선) 탐구보고서 대회 / (전국본선) 온라인 논술대회&발표대회
- 4) 일시 : (지역예선) 2021.9.6.(월) ~ 9.17.(금) / (전국본선) 2021.11.6.(토)

## 한국경영학회

### ■ 대전총청지회 세미나 개최

(2021.12.14(화), 15:00~18:00)

- 1) 주제 :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IP경영의 역할과 과제-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 2) 주최 : 한국경영학회
- 3) 개최 장소 :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우암홀, 직지홀)

### ■ 광주전라지회 세미나 개최

(2021.12.20(월), 15:30~18:00)

- 1) 주제 : 광주권의 장수기업과 장수가게 육성
- 2) 주최 : 한국경영학회 광주전라지회, 무등일보, 미래남도연구원
- 3) 개최 장소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동영상강의실 #6423

### ■ 한국경영학회 동계학술대회

(2022.02.22(화), 10:00~18:00)

- 1) 주최 : 한국경영학회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제포럼』,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 ■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1.7.9(금), 13:30~18:00)

- 1) 주제 : 코로나19 시대 공공부문의 성과 제고와 감사원의 역할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감사원 감사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회계학회
- 3) 개최 장소 : 감사원 제2별관 대회의실

### ■ KER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7.27(화)~28(수))

- 1) 주제 : 2021 KER 국제학술대회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 3) 개최 : Virtual Webinar Conference

### ■ 공동학술 컨퍼런스 개최 (2021.10.20(수), 10:00~12:00)

- 1) 주제 : 디지털 시대: 중소기업금융의 현재와 미래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IBK기업은행
- 3) 개최 장소 : IBK기업은행 본점 15층 대강당

### ■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11.5(금), 13:30~17:20)

- 1) 주제 :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 3) 개최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 경제교육심포지엄 개최 (2021.11.10(수), 14:30~17:30)

- 1) 주제 :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과 교육과정에서의 위상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개발연구원
- 3) 개최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정책세미나 개최 (2021.11.12(금), 14:00~17:00)

- 1) 주제 :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편집위원회
- 3) 개최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정책포럼 개최 (2021.12.22(수), 13:30~16:30)

- 1) 주제 :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경제의 현실과 평가
- 2) 주최: 한국경제학회
- 3) 개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 공동포럼 개최 예정(2022.1.13(목), 14:00~16:00)

- 1) 주제 : 한국경제 발전 방향과 기업/산업의 역할
- 2)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 3) 개최 장소 : 연세대 대우관

### ■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2022.2.10(목)~11(금))

- 1) 참가 학회 : 한국경제학회 외 55개 경제학 관련 학회
- 2) 개최 장소 : 연세대

## 한국교육학회

### ■ 「교육학연구」 발행

- 2021년 5월 31일 「교육학연구」 제59권 3호(영문)
- 2021년 6월 30일 「교육학연구」 제59권 4호(국문)
- 2021년 8월 31일 「교육학연구」 제59권 5호(국문)
- 2021년 10월 31일 「교육학연구」 제59권 6호(국문)
- 2021년 11월 20일 「교육학연구」 제59권 7호(영문)

### ■ 제3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14~16시
- 주제 : 학교자치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재구조화 방안

### ■ 제1차 학술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14~16시
- 주제 :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탐구: 사적 고찰

### ■ 제2차 학술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14~16시
- 주제 :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탐구: 과제와 전망

### ■ 제4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14~16시
- 주제 :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및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 이사(등기이사) 간담회 개최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14시
- 주제 : 학회 운영 및 2022년도 사업계획 논의

### ■ 제5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14~16시
- 주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배경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안 탐색

### ■ 한국교육학회-한국사학진흥재단 MOU 체결

-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16시

### ■ 제6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4~16시
- 주제 : 코로나19와 교육격차 :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 ■ 제7차 교육정책포럼 개최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4~16시
- 주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혁신적 운영모델 개발 탐색

## 한국국제정치학회

### ■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 개최

2021년 10월 22일(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산(legacy)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함

### ■ 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와 공동 특별학술회의를 개최

2021년 10월 29일(금) 통일부 후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재검토 이후 북핵 정책과 북한의 대응"이란 주제 하에 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와 공동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함

### ■ 2021 Global IR in Multiplex World 학술회의를 웨비나 형태로 개최

### ■ 국방대학교와 함께 공동 안보학술회의를 개최

11월 18일(목)에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의 모색 : 핵심대외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란 주제로 국방대학교와 함께 공동 안보학술회의를 개최

### ■ 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 1)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 2021년 12월 11일(토)
- 2) 장소 : 국립외교원
- 3) 주제 : 공생의 세계질서를 위한 한국의 국제정치학 (Korean IR for the Future World Order of Co-existence)
- 4) 회의 형식 : 참가자 오프라인 대면 회의 + 화상중계

### 한국문화인류학회

- **특별 토론회 개최**  
(2021년 7월 20일(화), 15:00~17:30)
  - 1) 주제 : 평등 정의 관용을 위한 인류학의 발걸음과 차별 금지법 제정
  - 2) 주최 : 한국문화인류학회
  - 3) 개최 장소 : 온라인
  
-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성명서**  
본 학회와 한국사회학회는 사회·문화 교육의 존립을 뒤흔드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21년 8월 20일) 추진
  
- **2021 특별 대담회 (2021년 9월 8일(수))**
  - 1) 주제 : "한국 사회는 무슬림 난민과 이주민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
  - 2) 주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서울대학교 HK+ 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단  
한국문화인류학회
  - 3) 개최 장소 : 온라인
  
- **2021 가을 학술대회 (2021년 11월 19일(금)~20일(토))**
  - 1)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 개인과 공동체의 전망
  - 2) 주최 :  
한국문화인류학회  
영남대 BK21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유산 큐레이팅 교육연구팀  
전남대 BK21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교육연구단  
부경대 글로벌지역학BK21교육연구단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 3) 개최 장소 : 영남대학교, 비대면 온라인 발표
  
- **2022년 제4회 한국문화인류학회 대학원생 포럼 개최 (2022년 1월 14일(금))**

###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복지학 발간 및 저널레터 발송**
  - 1) 2021년 8월 : Vol. 73(3) 발간: 총 9편 논문 수록
  - 2) 2021년 11월 : Vol. 73(4) 발간 예정
  
-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발간**
  - 1) 2021년 6월 : Vol. 15(2) 발간: 총 8편 논문 수록
  - 2) 2021년 10월 : Vol. 15(3) 발간: 총 10편 논문 수록
  
-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1) 2021년 3월 공동학술대회 지원 신청
  - 2) 2021년 6월 최종선정 및 협약완료
  
- **연구프로젝트 수행**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지정기탁사업
    - 기간 : 2021년 4월 ~ 10월
    - 사업명 :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불평등 연구사업
    - 참여 분야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 2)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사업
    - 기간 : 2021년 6월 ~ 12월
    - 사업명 : 코로나19 공존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평가 및 포스트 코로나 사회안 전망에 대한 방향 연구
  
- **뉴노멀 포럼 공동주관**
  - 1) 한국복잡계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 주관
  - 2) 4차 뉴노멀 포럼 : 2021년 7월 23일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
    - 주제 : 사회변화와 사회복지: 새로운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1) 2021년 7월 7일 학술지 지원 신청
  - 2) 11월 2일 선정 및 협약 완료

### ■ 감사연구원-학계 공동 학술대회 참여

- 1) 주제 : 코로나19 시대, 공공부문의 성과 제고와 감사원의 역할
- 2) 날짜 : 2021년 7월 9일(금)
- 3) 장소 : 감사원 제2별관 대회의실(B1)
- 4) 참여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공법학회, 대한예방의학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회계학회

### ■ 운영이사회 개최

- 1) 날짜 : 2021년 7월 15일(목)
- 2) 2021년 상반기 학회 활동 보고
- 3) 2021년 학회 운영 방안 논의 - 공동학술대회 방향성, 차차기회장 선거 등

### ■ 임시법인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1) 날짜 : 2021년 7월 19일(월)
- 2) 임시이사회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차기 회장 감사 선출 세칙 개정
- 3)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진행 방식(단일 온라인 투표 방식) 및 일정 확정

###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중일 회장단 회의 개최

- 1) 날짜 : 2021년 8월 4일(수)
- 2) 장소 : 온라인
- 3) 참석자
  - 한국 : 구인회 회장, 김범중 아시아학술교류위원장
  - 중국 : 평화민 회장 외
  - 일본 : 키하라 회장, 와케 부회장 외
- 4) 내용 : 각국 추계학술대회 개최상황 보고, 3개국 회장단 대면 협의 방식 및 일정논의, 한중일 교류 협약서 갱신 등

### ■ 연구방법론 워크숍 진행

- 1) 주제 : 사회복지분야 빅데이터 분석방법
- 2) 강사 : 송태민(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 3) 일시 :
  - 1차(기초) : 2021년 10월 9일(토), 13:00~17:00 / 참석자수 : 48명
  - 2차(심화) : 2021년 10월 16일(토), 13:00~17:00 / 참석자수 : 51명
- 4) 진행방법 : Zoom을 통한 온라인 진행

### ■ 2021 공동학술대회 개최

- 1) 일시 : 2021.10.22.(금) - 23.(토)
- 2) 장소 : 온라인 웨비나 진행 (촬영장소: 서울대학교)
- 3) 구성 : 기획세션 외 다양한 개인 및 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발표 진행
  - \*「2021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kasw.web-ferrence.com/>)를 통해 참여
- 4) 기획세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복지의 혁신과 재구성
  1. 포스트코로나 시대, 연대의 재구성 (조남경, 성공회대)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재구성 (윤홍식, 인하대)
  3.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가능성과 한계 (임정원, 강남대)
- 5) 참여학회세션 : 16개 학회
- 6) 산학협력세션 : 7개 협력기관
- 7) 종합패널토의: 학회장들이 말한다. 사회복지교육, 이대로 좋은가? (17개 학회 학회장 참여)
- 8) 자유발표 : 56팀 / 대학원생발표 : 9팀 / 박사학위세션 : 4팀 / 포스터발표 : 16팀
- 9) 주최 : 한국사회복지학회

### ■ 정기총회 개최

- 1) 날짜 : 2021년 10월 22일(금)
- 2)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ZOOM을 통한 온라인 병행)
- 3) 주요내용 : 2021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2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차차기회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

### ■ 하반기 뉴스레터 발송

- 1) 날짜 : 2021년 12월 초 발간 예정
- 2) 주요내용 : 학회장 인사, 주요학회소식 전달, 회원동정,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안내, 학회지 모집 등

## 한국사회학회

- 2021 정기사회학대회 개최
  - 1) 주제 : 소통과 공존을 위한 사회학
  - 2) 일시 : 2021. 12. 17(금) -18(토)
  - 3) 발표신청 : 11월 5일(금) -11월 15일(월)
  - 4) 발표 신청방법 : 정기사회학대회 홈페이지(ksa2021.org)를 통해서 신청
  - 5) 장소 : 비대면 온라인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발표 세션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제공)

## 한국심리학회

### ■ 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 사업에 관한 알림: 회장 서한 발송

제50대 한국심리학회 장은진 학회장은 심리서비스법(심리사 법제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최근 심리사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을 한국심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함

### ■ 2021년 제75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2021. 8. 19.(목)~8. 21(토))

- 1) 주제 : 한국사회의심리적통증
- 2) 주최 : 한국심리학회 산하 위원회 및 분과학회
- 3) 개최 장소 : 온라인 플랫폼
- 4) 참가자 수 : 1522명
- 5) 프로그램 수 : 심포지엄 18개, 워크숍 7개
- 6) 발표논문 수 : 89건 (포스터 발표 수 : 160건)

### ■ ‘장훈장학회’ 심리학 학술연구 하반기 후원 안내

- 1) 접수기간 : 2021.07.01.~21.08.27
- 2) 지원내용 : 심리학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조사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해서 무료로 제공
- 3) 결과발표 : 2021. 09. 17일(금)

- 심리검사심의위원회 : 심리검사인증제도 실시  
(사)한국심리학회에서는 국내에서 제작 및 출간되는 심리검사의 양호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심리검사인증제도]를 실시함. 본 제도의 목적은 심리검사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해당 기관에서 검사 활용 시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임

- (사)한국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 1) 학회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gw3a15zqz\\_l3tVZrzoKAXA](https://www.youtube.com/channel/UCgw3a15zqz_l3tVZrzoKAXA)
  - 2) 학회 공식 SNS 계정 안내
    - ①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TheKPA>
    - ②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npsychology/>
    - ③ 트위터 : <https://twitter.com/TheKPA>

### ■ 제5차 한국심리학회 Doctoral Colloquium 2차 심사결과 공고

국내 박사과정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 6월 18일(목)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 접수를 통해 총 16편의 접수된 논문 중 총 6편의 논문이 1차 심사를 통과함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저자들이 2021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Doctoral Colloquium 특별 심포지엄에서 연구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수상함

### ■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 위기와 회복탄력성 개최 (2021년 9월 4일)

- 1) 주제 : 위기와 회복탄력성
- 2) 주최 : 한국심리학회(KPA), 중국심리학회(CPS), 일본 심리학회(JPA)
- 3) 개최 장소 : Zoom Webinar

### ■ 2021 연구방법론 기초학교 개최 (2021년 10월 2일~12월 4일)

- 1) 주제 : 연구방법론 기초학교
- 2) 주최 : (사)한국심리학회
- 3) 주관 :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 4) 개최 장소 : Zoom

### ■ 심리학 융복합 지원사업

학회원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분과학회 간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융복합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함

- 1) 접수기간 : 2021.11.11.(목) ~ 2021.11.25(목)
- 2) 지원금 : 15,000,000원

### ■ 제6회 일반심리사 자격증 시험 실시 안내 (2021년 11월 28일)

- 1) 주최 : (사)한국심리학회 심리서비스법위원회
- 2) 개최 장소 : 온라인 ZOOM

### ■ 박사후과정 해외연수지원 사업

한국심리학회에서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비용을 지원함

- 1) 일정 : 2021년 12월 1일(수) 10:00~2021년 12월 15일 (수) 18:00
- 2) 지원금 : 1,200만원

## 한국언론학회

### ■ 학회장 취임식 (2021.10.16.(토), 17:20~18:00)

- 1) 내용 : 한국언론학회 48대 회장 김경희 취임
- 2) 소속 :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 3) 기간 : 2021. 10. 16~2022. 10. 15

### ■ 202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2021.10.16.(토), 12:20~17:00)

- 1) 주제 : 경계 짓기와 허물기 -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에 관한 성찰
- 2) 주최: 한국언론학회
- 3) 개최 장소: 한림대학교 & 온라인 중계 병행

### ■ 세미나 개최(2021.11.11.(목), 15:00~17:00)

- 1) 주제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도약과 상생을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
- 2) 주최 : 한국언론학회
- 3) 개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온라인 중계 병행

### ■ 세미나 개최(2021.11.26.(금), 14:00~17:00)

- 1) 주제 : 백래시 대응과 공적 공론장의 재구성
- 2) 주최 : 한국언론학회
- 3) 개최 장소 :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

### ■ 세미나 개최(2021.12.02.(목), 14:30~17:00)

- 1) 주제 : ESG 확보를 위한 미디어 산업의 다양성 가치 회복
- 2) 주최 : 한국언론학회
- 3) 개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온라인 중계

### ■ 세미나 개최(2021.12.09.(목), 10:00~13:30)

- 1) 주제 : 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의 사회적 책무: 공영 언론의 윤리현장과 보도준칙 개선 방향
- 2) 주최 : 한국언론학회 · 연합뉴스
- 3) 개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온라인 중계

■ 세미나 개최(2021.12.23.(목), 14:30~16:30)

- 4) 주제 :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의 모색
- 5) 주최 : 한국언론학회 · 방송통신위원회
- 6) 개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온라인 중계 병행

한국여성학회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관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8.13.)
- 2021년 제2차 학술포럼 <'이대남/이대녀' 현상의 재구성 : 2030 생애과정을 통해 본 젠더관계의 진단과 전망> 개최(2021.10.29.)
- 2021년 추계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교육과 민주주의> 개최(2021.11.20.)

한국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 2021 연례학술대회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세계에서 민주주의" 개최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12월 3일~4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의 세계에서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2021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함. RESEARCH GRANT 수상자들로 구성된 패널이 별도 조직 되어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함

한국행정학회

■ 2021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1) 주제 :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정부의 재설계
- 2) 주최 : 한국행정학회
- 3) 일시 : 2021. 12. 09~2021. 12. 10
- 4) 장소 : LW컨벤션(서울)

# 협의회 소식

## 1. 일반 업무

- 6월 30일 SSK 네트워킹지원사업의 3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8월 18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주관 국회세미나에서 본 협의회를 대표해서 회장이 개최 인사말을 함
-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 알렌관 203호에서 이사회를 개최함



- 12월 14일 오후 5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GS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회장에 연세대 경영대학의 박영렬 교수를 선임함
- 12월 30일 뉴스레터 발간 및 송부

## 2. 국제협력 업무

- 9월 6일 주한인도대사관과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최하는 제2차 온라인워크숍 Changing Socio-Economic Landscape in India & ROK 에서 본 협의회 김정식 회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10월 26~28일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는 “Navigating the future with and after Covid-19 : The role of social sciences in Asia.” 라는 주제로 제24회 AASSREC Biennial General Conference를 개최하였으며 본 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참가함.



- 10월 28일 AASSREC의 Business Meeting에서 AASSREC 창립 50주년을 맞아 25th Biennial General Conference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이 2022-2023년 AASSREC 회장국을 맡기로 결정함

- 10월 14일 ISC(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General Assembly에서 Governing Board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가함

### 3. 학술 활동

#### (1) 심포지엄 개최

-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대 국제학 연구소 GS룸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SSK 지원사업단과 공동주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금리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한국금융연구원 ·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 SSK지원사업단  
후원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매일경제신문

#### | 초청의 말씀

코로나 팬이 충격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소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략부족과 임금인상으로 비용인상에 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로 높아진 시중유동성은 결국 금리인상을 가속화시켜 신종성장국을 부채위기에 위협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저금리로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 비열이 커져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침체가 심화되거나 미국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경우 자본유출과 자산가격 비열화로 금융부실 위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SSK지원사업단은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금리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학계의 연구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기대를 초빙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부디 참여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며 고감겠습니다.

2021년 12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 정 식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박 종 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박 철 희  
SSK지원사업단 단장 곽 종 길

#### | 프로그램

13:30~13:50 | **개회식** | 전례시회 회상(연세대)

- 개 회 사 김장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관 령 사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축 사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13:50~15:30 | **세션 1** | 주제발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금리 전망 사회 최은정(연세대)

- 발표 1**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금리 전망  
- 발표: 안재민(서울대)  
- 토론: 최상엽(연세대)
- 발표 2** 한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정책의 과제  
- 발표: 장 민(한국금융연구원)  
- 토론: 임근형(한국은행)

15:30~15:40 | **휴 식**

15:40~17:00 | **세션 2** | 패널토론: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금리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사회 김민정(숭실대)

- 패 널 김상오(동국대,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 성태윤(연세대)
- 신관호(고려대)
- 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00 | **폐 회** | -기-나-은-

심포지엄 문의 | **KOSSREC** 서울시 중랑구 인왕선로 1길 25 (03028)  
TEL: 02-735-2659 FAX: 02-737-3264  
한국사회과학협의회 E-mail: kossrec10@naver.com

- 12월 28일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스레터에 게재함

(2) 석학강좌 개최

- 10월 22일 석학강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 방영함

\* 문정인 교수(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세종연구소 이사장)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1시

장소 : 덕성여대 차미리사관 225호

주제 : 미·중 신냉전구도의 대두와 한국의 선택

\* 정운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일시 : 10월 22일(금) 오후 3시

장소 : 덕성여대 차미리사관 225호

주제 :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3) 학술지 발간

- 11월 1일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48, no.2을 발간 배포함

- 12월 1일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48, no.3을 발간 배포함



## 협의회 임원진

###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전)한국경제학회 회장
부회장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현)한국경영학회 회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현)한국심리학회 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현)한국교육학회 회장
감사	배금찬	국립외교원 정치학	
	한광석	부산대 경제학	

###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홍 순 만	연세대 행정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안 재 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송 영 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김 광 환	연세대 경제학	국장

##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한지리학회	황철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한국경영학회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한국경제학회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국교육학회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국문화인류학회	홍석준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학회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한국심리학회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한국언론학회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한국여성학회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국정치학회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행정학회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김정식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21년 12월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mailto: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http://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mailto: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http://www.kossrec.org)